

2011 IT 산업 경쟁력 지수 대한민국

종합 순위 (아태지역 국가 리스트)

국가	2011 순위	2011 점수	2009 순위	2009 점수
싱가포르	3	69.8	9	68.2
호주	8	67.5	7	68.7
대만	13	64.4	15	63.4
일본	16	63.4	12	65.1
뉴질랜드	18	61.3	19	58.8
홍콩	19	60.8	21	57.5
대한민국	19	60.8	16	62.7
말레이시아	31	44.1	42	35.6
인도	34	41.6	44	34.1
중국	38	39.8	39	36.7
태국	50	30.5	49	31.8
필리핀	52	27.9	51	28.5
베트남	53	27.1	56	25.0
인도네시아	57	24.8	59	22.8

하이라이트

- > 한국은 이번 조사에서 이전 대비 3단계 하락한 19위를 기록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R&D 환경 및 결과물이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IT 특허 출원 수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의 IT 인프라 및 IT 인적 자원은 우호적인 법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한국은 전자상거래와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 있어서의 성장세와 함께 전자통신 (telecommunication) 분야의 가장 높은 수준의 발전과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2011년 IT 경쟁력 지수 조사에서 종합 19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9년 조사된 16위 대비 3위 하락한 결과이다. 하락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서는 R&D 환경에 대한 점수가 저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R&D 환경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홍콩과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하였으며, 5위인 뉴질랜드와 7위인 말레이시아와 인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INDEX)에 관한 설명

IT 산업 경쟁력 지수(IT Industry Competitiveness Index)는 기업의 경쟁력 요소들을 평가하고, IT 부문 실적에서 이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정함으로써, 66개국의 정보통신(IT) 산업 환경을 측정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을 위해 EIU가 만든 이 지수는 올해로 4번째로 각국의 IT 산업 경쟁력의 원동력을 찾는 주요 연구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BSA 웹사이트(www.bsa.org)를 통해 본 보고서에서의 지수에 관한 지표, 점수 계산 방법, 정의, 분석 보고서, 사례 연구, 동영상 인터뷰 및 기타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 한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 품질은 세계 26위로, 2009년 27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이 카테고리에서 4개 지표 모두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해 한국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경쟁해야 하는 환경적인 자유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한국 정부의 지원 정책들은 더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하는 새로운 4G무선 모바일 기술을 채택하는 동인이 되는 한편, 지속적인 경쟁 촉진과 가격인하 압력으로 작용했다.

IT 인프라: 한국은 IT 인프라 부문에서 한 순위가 상승하여 세계 19위를 차지했다. 주된 요인은 IT 투자 점수의 상승으로, 이는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장 지출이 40% 이상 상승한 것을 반영한다. 또한 한국은 IT 인프라의 다른 모든 지수들도 상승했는데, 대부분이 광섬유로 연결된 광대역 통신망 보급률(2010년 말, 37%)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인적 자원: 한국은 해당 부문에서 2009년보다 2계단 하락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표 상의 점수가 하락했기 때문이 아닌, 본 카테고리 부문에서 한국을 앞지른 호주와 중국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대학생 연령 대의 등록률이 98%를 넘어선 한국은 고등교육 등록에 있어서는 꾸준히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또한 IT 고용과 기술 능력 및 교육 품질에 있어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IT 인적 자원 환경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R&D 환경: 본 카테고리에서 점수 및 순위 하락(2009년 8위에서 현재 세계 12위로 하락)이 한국이 전체 지수에서 하락한 주요 요인이다. 또한 IT 특허 지표 - 지수 중 가장 가중치를 두는 지표 중 하나 - 가 R&D 환경 하락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IT 특허 응용은 가장 최근 자료(2007)의 총 응용의 13%를 차지했다. 이는 이전 연구보고서에서의 결과에서 기록한 18%보다 5%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더 많은 IT 특허를 창출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IT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이 되었으며 보다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을 기반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 R&D 지출은 상승해왔다.

법적 환경: R&D 부문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IT 산업을 위한 법적 환경의 성적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 세계 33위에서 21위로 급등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IP 권리 집행(2009년 한국은 미 무역대표부의 감시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의 순위가 모두 상승했다. 전자 서명 및 사이버 범죄 법 또한 시행되고 있다.

IT 산업 발전 지원: 한국은 이 부문에서 2009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세계 28위를 기록했다. 한 계단 하락은 주요 이유로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대한 일인당 정부 지출이 이전 수준보다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카테고리의 다른 요소에서 한국의 성적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의 전자정부 전략은 EIU의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기술산업 정책의 형평성에 있어서는 일부 기업 및 기술들에 우호적인 정책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